

환경·문화유산 통합 관리할 ‘정부기구 개편’ 역설

2017 신년 기자회견

34대 집행부 중점사업

“대선과정 정책제안, 실현 노력”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도 구성
승가육성·신행혁신 정책 마련
신도시 포교위한 종교시설 건립
총본산성역화...차질 없이 진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환경과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정부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환경과 문화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기구 개편안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최근 불교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재 정책을 대표하는 문화재청은 신앙의 대상이자 성보인 불교문화유산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일반 미술품처럼 인식해 빈축을 사왔다. 종단은 “문화재청이 사람 성보를 보존 관리하는데 적합한 정부기관인가”의문을 제기하며, 문화재보존과 성보보존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관련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종 백년대



계 본부를 구성해, 인공지능과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겠다”고 밝혔다. 백년대계 본부는 자성과 섣결사주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 사업들을 계승하면서 종단 내 흩어져 있는 미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할 승가육성, 사찰운영의 혁신, 불자상 확립과 신행혁신 등 종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미진했던 정책에 대해 임기 마지막인 올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중앙과 교구 균형발전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달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할 <교구 균형발전 보고서>를 도구, 중정 스님의 요청이 수십 차례 있었다. 지난 원로회의에서 ‘사면 안할 것이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서 ‘부처님

사업	내용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	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제안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구성	자성과섣결사주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 사업 계승해 미래종교 연구기능 집중
건지동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조계사를 중심으로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해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승려복지제도 확대	구족계 수지한 스님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	지역사회에서 교구행정, 사회적 역할 강화, 교구별 제정으로 입법화
은퇴자 등 특수출가 제도	50세 이상 출가희망자 위해 상반기 제도화
주지인사고가제 확산	전국 교구로 확대할 제도장치 마련
위례 불교문화보존센터 착공	불교문화재 체계적 과학적 보수 관리
세종 전통사찰홍보체험관 착수	한국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불교문화 체험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수행
환경문화관리 정부기구 제안	문화재청 일방행정 한계 벗어나 국립공원 등 국가유산 통합적 관리할 정부기구 개편방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안하고 실현 노력

산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힘쓴다. 계증법이나 재점관련 내용들을 평가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와 재정투명화와 합리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종회에서 부결되면서 차질을 빚은 은퇴자 등 특수출가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승려복지 역시 수혜자 확대에 주력한다. 2017년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임원치료비 요양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의 기반이 완성됐다는 점은 그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총본산 성역화와 신도시 포교를 위한 종교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경복궁 인사동 북촌을 연계한 건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사업

은 올해 10·27법난기념관 건립 착공식을 봉행하고, 누계 모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달려간다. 또 오는 9월에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도 착수식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착공식이 열린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예경의 대상인 성보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와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대형 괘불 전시공간 등도 마련해 불자들이 상시로 친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승려복지제도를 만들고 신도시 종교용지를 확보하는 등 종단적 성과는 문중과 산중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전법도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단과 총무행정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종책실행을 위한 과제

대중 공감대 확산 종법령 제·개정 안정적 재정 확보

총무원장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종책들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우선 종법령 제·개정 등 종단 내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은퇴자 등 특수출가제도’는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끈 종책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중앙총회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됐던 사업인 만큼 중앙총회와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종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 주지인사고과제도 전국 확산, 분담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법령 제·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분담금 제도 개선과 주지인사고과제 전국 확산 등은 도입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본말사 주지의 의무가 강화되는 사업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종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총본산성역화불사, 승려복지제도,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세종 전통사찰홍보체험관 등 굵직한 종단 차원의 불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부담이 마련돼야만 한다. 종단은 특별회계로 이들 사업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빠른 종단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대대적인 모연이 뒷받침돼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포교방면으로 제시된 신행혁신운동과 불자상 정립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님과 불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총회의원 법원스님은 “종단적으로 꼭 필요하고 종단에서 공심을 갖고 추진 중인 종책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대중과 널리 소통하고 때로는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1문1답

“문화재와 성보 특징 담아 널 기구 구성” “평범하게 기도정진하는 대중으로 살겠다”

10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신년 회견문 발표에 이어 다양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다음은 질의응답 요약.

- 차기 총무원장선거에서 직선제가 적용될 여지 있다.

“직선제 문제는 지난해 11월 중앙총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선거방식은 그동안 노출된 문제가 있고, 또 종교단체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줄이고 화합을 이뤄내는 선출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 문화재청의 일방적 문화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불교문화재는 종교적 성보와 문화재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복합적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에 부합하는 문화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낱 전시용으로 격하시키는 문제,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문화재 보전과 성보 보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구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장 정형스님)

- 사면과 관련해 향후 일정과 계획은.

“사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여년간 원로회의 결의와 도구, 중정 스님의 요청이 수십 차례 있었다. 지난 원로회의에서 ‘사면 안할 것이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서 ‘부처님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회견문 발표와 함께 총무원장직선제, 문화재 정책, 열빈자 사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오산날 전후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종정예하의 교시, 원로 스님들의 바람이 있으므로 종헌종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력을 할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 2015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불자가 많이 감소한 원인과 해결책은.

“설사 조사방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자 감소는 우리들에게 잘못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열정을 갖고 포교하려고 노력했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나부터, 우리

불자들이 주변에 부처님에게 귀의시키려 노력했는지 돌아보고 좀 더 적극적인 포교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 퇴임 이후 구상 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어디 공기 좋은데 가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듯, 지난 8년간 종단에 얽매이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생활을 여과시키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평범한 대중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2017년도

연수교육 안내

- 2017년도 승려연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단 승려연수교육은 2010년 시행 이후, 매년 연수의 유형과 강좌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약4,000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법 역량과 직무능력을 배가하는 재교육 제도로써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2017년도 연수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17년도 연수교육은 “강좌형 연수”(법계과정, 사찰경영과정, 경전과정, 인문·사회·과학·과학·문화과정) 30개 강좌 및 “체험형 연수”(체험과정, 워크샵 과정) 4개 강좌, “순례 연수” 9개 강좌 등 총 43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더하여 “자원봉사활동 연수”는 종단 사회복지재단 및 교구본사 복지재단의 산하시설 등 전국 184개 복지시설에서 가능하며, “인중교육 연수”는 63개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 연수교육 중 강좌형 연수의 “법계과정”이 2015년부터 승가고시(1급, 2급, 3급) 응시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승가고시 응시대상자 스님께서는 해당 강좌를 5년 내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교육대상

- 법계과정: 건덕·계덕, 중덕·정덕, 대덕·혜덕, 중덕·현덕, 종사·명덕(종단최고지도자 특별과정)
 -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려는 스님
 - 그 외 연수과정: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및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 *승남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 가능

연수별기간 / 연수점수

- 법계과정: 2박3일 / 30점
- 사찰경영지도자과정: 3박4일 / 60점
- 일반연수과정: 2박3일 / 30점
- 순례 연수: 4박 5일, 6박 7일, 7박 8일, 9박 10일, 10박 11일 등 / 30점
- 자원봉사활동 연수: 12시간이상 / 30점 부여
-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4시간당 10점의 연수점수를 부여, 1일 최대 6시간, 연 24시간(60점)까지만 봉사활동을 인정.
- 인중교육 연수: 과정별 일정 상이 / 30점
 - 교육시간과 상관없이 한 과정을 수료할 경우 30점의 점수를 부여
 - 인중교육은 연 최대 30점(강좌)까지만 연수점수를 취득할 수 있음.

교육장소

- 한국문화연구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서울, 광주, 전남, 통도사연수원 등)

신청방법

-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연수교육신청’ 코너를 클릭하거나, 위 연수사이트

- 주소로 직접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신청은 각 연수 4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 사이에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해외순례과정은 제외)
- 접수인원 초과로 인한 대기자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해외순례과정은 순례과정별 담당 여행사로 전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인중교육은 과정별 담당 기관으로 전화하여 일정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2017년 각 과정별 연수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 법계과정: 건덕·계덕 10만원 / 중덕·정덕이상 15만원 / 종사·명덕(종단최고지도자 특별과정) 20만원
- 사찰경영과정: 30만원
- 그 외 연수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안내에 별도표시)
 - *연수교육비 할인 안(기본 교육비 20만원 중 할인)
 - 승남 9년 이하인 스님: 10만원 감액(승남료 50%지원)
 - 승남 10년 이상인 스님: 5만원 감액(승남료 25%지원)
 - *종단최고지도자 특별과정과 “사찰경영과정”, 그리고 “순례과정”은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납부방법: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 사찰명으로 입금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스)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로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02-2011-1807, 1810 팩스) 02-732-4926

2017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7년도 연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유형	과정	강좌명	강사	날짜
법계과정		종단리더십실무과정(건덕·계덕) 1차 ~ 4차	정오스님 외 3명	2월 15일 ~ 17일 3월 16일 ~ 18일 9월 11일 ~ 13일 10월 16일 ~ 18일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중덕·정덕 I) 1차, 2차	금강스님, 간재총 의 3명	3월 13일 ~ 15일 9월 21일 ~ 23일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I(중덕·정덕 II) 1차, 2차	인목스님, 임해성	4월 5일 ~ 7일 9월 6일 ~ 8일
		종단지도자과정(대덕·혜덕) 1차, 2차	화안스님, 고선형 외 3명	3월 6일 ~ 8일 9월 14일 ~ 16일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종덕·현덕)	화안스님 외 4명	10월 10일 ~ 12일
사찰경영과정		종단최고지도자 특별과정(종사·명덕)	김용진, 이연오 외 3명	6월 27일 ~ 29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 1차 ~ 4차	목종스님, 양현웅 등	2월 21일 ~ 24일 5월 22일 ~ 25일 9월 25일 ~ 28일 10월 29일 ~ 31일
		재미있는 계율이야기	자현스님	4월 6일 ~ 8일
		경회집	설정스님	4월 17일 ~ 19일
		아미타불교	각목스님	7월 5일 ~ 7일
경전과정		보리도자재론	강성철	8월 16일 ~ 18일
		백암록	김태원	8월 23일 ~ 25일
		대승기신론	이명래	10월 30일 ~ 11월 1일
		근현대 중국의 이해와 우리의 미래	김용욱	3월 2일 ~ 3일
		인공지능 붐과 공포	지승호	4월 5일 ~ 7일
인문과학문화과정		세계종교의 흐름과 불교의 변화	황순일	6월 14일 ~ 16일
		사찰경영과 불교의 대화	김종욱	7월 19일 ~ 21일
		불교생각의례	화안스님	10월 12일 ~ 14일
		불교경제론	윤성식	10월 23일 ~ 25일
		불교와 양명학의 마음이론	최재욱	11월 29일 ~ 4일
체험과정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통찰의 세계	박문호	11월 7일 ~ 9일
		2년3월에 끝나는 동양사 제작	홍순성	7월 12일 ~ 14일
		수행과 요가	현천스님	11월 7일 ~ 9일
		천년 명상지도과정	김남선	4월 11일 ~ 13일
		우리사찰 신도 두배늘리기	김종영	8월 28일 ~ 30일
국내연수		경주남산불적탑사	불국사 등	4월 17일 ~ 19일
		강원불교유적답사	진만사지 등	9월 6일 ~ 8일
		백제불교문화답사	서산, 익산 등	9월 25일 ~ 27일
		호남불교문화답사	대흥사 등	10월 23일 ~ 25일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부탄 불교순례	설정스님	3월 17일 ~ 24일
해외연수		현몽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불교순례	현몽스님	4월 12일 ~ 18일
		해충스님과 함께하는 동유럽 문화탐방	해충스님	5월 12일 ~ 21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북인도 불교성지순례	진옥스님	8월 11일 ~ 21일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몽골불교 / 러시아·바이칼순례	지안스님	9월 9일 ~ 16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143개 기관		
자원봉사활동연수		교구본사 법인 산하 38개 시설		
		종단 산하 및 기타 3개 시설		
인중교육 연수		교육원 인중 63개 과정		

* 담당기관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nkedu.buddhism.or.kr)